

金 時 萬 教授指導
碩士學位 請求作品研究論文

類似聯想을 통한 陶磁造形 研究

2006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工藝學科

金 惠 英

類似聯想을 통한 陶磁造形 研究

金 時 萬 教授指導

이 論文을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 11月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工藝學科

金 惠 英

認 准 書

金 惠 英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

審査委員 _____ ㉠

審査委員 _____ ㉠

誠信女子大學校 大學院

論 文 概 要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기억능력은 간과할 수 없는 인간의 특성 중 하나이고 광범위한 정신활동의 근본이다. 그러나 그 능력은 제한된 한계를 가지며 급기야 시간의 흐름과 함께 과거기억을 망각에 이르게 한다.

보통 망각되어진 기억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재된 것으로 유사연상과정을 통해 다시 재생되어진다. 이는 어떠한 단어를 듣거나 사물을 볼 때 그것과 비슷한 다른 물체나 관련된 경험, 과거의 추억 등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과 그에 동요되는 심리적 변화까지를 말하며, 여기서 되살아난 감정들은 그 때의 정서를 느끼게 할 뿐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더하여 더욱 풍부해지기도 한다.

본 연구는 유사연상으로 인한 과거 기억의 환기를 통해 현대인들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동시에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추억이 깃든 시간에 비추어 현재를 바라봄으로써 잠시나마 마음의 안위와 평정심을 느끼게 하고자 하였다.

이에 연구에 도입된 소재들은 과거로의 시간을 머금은 나뭇가지, 돌 등의 자연물과 과거로부터 사라져 가는 고무신, 농약통 등이 선택되어졌다. 구성상의 물질적 소재들은 떨어져 있을 때는 창고의 뒤죽박죽된 물건들처럼 무의미하지만, 상징과 비유에 의한 은유적 표현을 함으로써 연상을 가능케 하는 기억의 매개체로 재해석되었다. 제작방법으로는 조화로운 조형성을 탐구할 수 있는 개체결합작업을 하였다. 개체와 개체간의 접목으로 인해 삽입되어진 부분은 보는 이에게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며 사고의 즐거움을 줌과 동시에 관념적 사유의 시간을 갖게 하였다. 태토로는 자기질점토를 선택하였고, 시유는 형태미를 더욱

부각시키는 단순 명료한 느낌의 백색계통유약을 분무시유하거나 태토 본연의 발색을 이끌기 위해 시유하지 않고도 표현하였다. 소성은 전기가마를 이용하여 1차 소성 900℃, 2차 소성 1250℃로 산화소성하였다.

본 연구로 인한 과거기억의 되새김질이 현대인의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고 삶에 활력을 되찾아주며, 일상에서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치는 사물에 대해 새롭고 놀라운 시선을 가지게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目 次

論文概要

I. 序 論	1
1. 研究目的	1
2. 研究內容 및 方法	3
II. 本 論	5
1. 記憶의 이미지화	5
2. 類似聯想에 대한 定義	7
3. 개체결합에 대한 造刑的 考察	8
4. 試作品 製作 및 說明	13
1) 製作意圖	13
2) 製作過程	15
(1) 胎 土	15
(2) 成 形	15
(3) 釉 藥	16
(4) 燒 成	19
3) 試作品 說明	21
III. 結 論	34

參 考 文 獻

ABSTRACT

表 目 次

【표 1】 자기질 점토의 조성비	15
【표 2】 유약 조합비	17
【표 3】 초벌용 화장토 조합비	18
【표 4】 초벌용 화장토와 고화도 안료 혼합비	18
【표 5】 초벌용 화장토와 고화도 안료 혼합비	18
【표 6】 소성 온도표	20

圖 目 次

【도판 1】 Giorgio De Chirico 作	11
【도판 2】 Salvador Dali 作	11
【도판 3】 Masayuki Inoue 作	11
【도판 4】 제이슨 워커 作	11
【도판 5】 오쿠다 히로모 作	11
【도판 6】 노이 볼커스 作	12
【도판 7】 박은정 作	12
【도판 8】 Margaret Realica 作	12
【도판 9】 Margaret Realica 作	12
【도판 10】 Richard Shaw 作	12
【도판 11】 Kimpei Nakamura 作	12
【도판 12】 다시마 에츠크 作	12

試 作 品 目 次

【시작품 1】 Magic Castle	21
【시작품 2】 Haven of Peace	22
【시작품 3】 박제된 기억들 I	24
【시작품 4】 박제된 기억들 II	25
【시작품 5】 박제된 기억들 III	26
【시작품 6】 존재확인...?	28
【시작품 7】 마지막 해돋이	29
【시작품 8】 소녀 일탈을 꿈꾸다	31
【시작품 9】 In My Memory I	32
【시작품 10】 In My Memory II	32

I. 序 論

1. 研究目的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큰 목표는 평화롭고 안정된 삶 일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자아실현은 도리어 현대인에게 심리적 부담감과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정신적 안위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게 한다.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의 인간관계는 점점 소원(疏遠)해지며 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그로부터의 전환으로 과거에 대한 동경을 일삼는다.

어린 시절 아름다운 기억의 회상은 휴식과 사색의 시간을 제공하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힘의 원동력이 되며,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을 쉬게 할 수 있는 안식처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과거 기억의 이미지들은 대부분의 경우 형태가 분명하고 화려하게 채색된 것이 아닌 시간의 틀에 갇힌 불확실한 것들이기에 그 틀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선 어떠한 특정한 사건이나 상황에 연관이 있는 단서의 자극이 필요하다. 이때 그 단서를 제공하여 선명한 기억에 도달하게 하는 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유사연상이다.

유사연상은 어떤 매개체를 보고 그것과 연관된 잠재된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것과, 그로인한 감정의 동요까지를 말한다. 본 연구는 어떤 사물에서 느껴지는 은유적 유사연상과정을 통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망각을 일깨워 과거기억 환기를 유도하고, 정형화된 사회상황에 염증을 느낀 현대인의 피폐한 영혼을 그 기억으로 치유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동시에 산업화에 기인한 복잡성, 다

양성 등의 외적 원인에서 초래된 현대인의 자아정체성을 확립시키고, 미래로의 희망적 도약의식을 심어주어 삶의 풍요로움을 되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2. 研究內容 및 方法

과거의 기억은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자연스럽게 망각되어 점진적으로 희미해져 가지만 지난 날 남겨두었던 흔적을 발견하거나 그 때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잊힌 삶의 모습을 다시금 일깨워 과거를 현재와 공존하게 만든다. 이런 자극적 요소들은 개인의 주관적 영역을 통해 발산되며 심상 어딘가에 박제되어 있던 기억을 되살려 감상적 유사연상을 유도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 이러한 명제를 전제로 작품표현에 있어 일상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기억의 단서를 사물에 은유적으로 연관시켜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기억의 망각을 일깨움과 동시에 사색의 시간을 갖게 할 물질적 유사연상 소재들은 과거로의 시간을 머금은 나뭇가지, 돌 등의 자연물과, 과거로부터 사라져가는 고무신, 농약통 등의 인공물들로 선택되어질 것이고, 그 소재들에서 느껴지는 자극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성과 공통점을 사고하고 학습한 후 관념적으로 재해석하여 마음의 고향을 상실한 현대인에게 삶의 안위를 제공하고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기억의 짝으로 심화시킬 것이다.

제작방법으로는 소재의 본질적 의미는 보다 자세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되, 직접적인 메시지 전달을 피하기 위해 그것들을 파괴하고 다시 재결합 하는 개체 결합 형태의 작업을 하고자 한다. 이는 기억의 소재들을 원기둥과 육면체와 같은 단순한 형태의 뼈대에 $\frac{1}{3} \sim \frac{2}{3}$ 정도 삽입시킴으로 보이는 자체로의 시각적 즐거움 뿐 아니라 감추어진 부분에 대한 상상력과 호기심을 유발하는 사고의 즐거움도 전달하려 함이다. 여기서 단순한 형태들은 복잡한 자연으로부터 얻어진 간결하고 정제된 형태이며, 일체의 장식성을 배제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원스럽고 명쾌한 느낌을 주고, 유사연상을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자극적 소재를 한결 돋보이게 하는 작품배경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재형태의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 석고틀에 점토를 가압하거나 이장 주입하여 얻어진 탈형물로 작업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생기는 태토표면의 갈라짐과 형틀의 이음새 및 주입구 흔적 등이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여 자연스런 장식적 요소로 사용하고자 한다. 또한 결합되어진 새로운 창조물의 매끄러운 면에 자연과 인공물의 조화로부터 얻어진 패턴 문양을 따듯하고 화사한 느낌의 파스텔톤 색화장토로 통일감있게 장식하기도하여 개체와 개체간의 자연스런 결합을 꾀하고, 더욱 강한 의미전달의 표현 방법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태토는 흰 자기질 점토를 선택하여 색화장토의 선명한 발색을 최대화 하고자 한다.

II. 本 論

1. 記憶의 이미지화

경험의 축적이라 볼 수 있는 인간의 삶은 시대의 흐름과 함께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많은 체험을 하고 그것을 간직하려 노력하지만 대부분을 상실하고 만다. 그러나 우리의 기억¹⁾은 완전히 잊혀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억능력한계로 인해 잠재되어 있는 것으로 어떤 자극에 의해 문득 선명하게 살아나기도 한다.

이렇듯 기억은 과거의 경험을 인간의 정신 속에 간직하고 되살리는 것의 반복 현상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억의 저장에 잘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기억이미지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결정요소로 이를 파지(Retention)²⁾라 한다. 파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상과정의 오류가 생기고 이는 기억의 이미지화가 실패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빛바래고 아련한 모습의 잠재적 이미지는 결코 의식화되지 못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어떤 단서에 의해 파지되어 새로운 이미지로 승화되며, 그 감흥 또한 더해간다. 어렸을 때 할머니에게 듣고 자란 옛날이야기들은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없지만 할머니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들었던 순간의 이미지는 선명하고

1) 최 민, 『기억 망각』, 2000, p.205.

'기억'이란 학습된 사고, 행동, 의식작용 등 행위만이 아니라 반사작용, 심지어 유전인자까지 기억의 영역에 포함된다. 말하자면 오감을 통하여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받아들이는 모든 각인이나 흔적을 망라하며 과거만이 아니라 현재의 경험 전체가 대상이 된다.

2) 파지(Retention) : 학습기억의 저장정도, 기억능력.

비가 오는 날이면 그와 관련된 옛 기억이 저절로 떠올라 추억에 잠기는 것과 어떤 장소의 냄새를 기억해 내는 것 등이 이러한 예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오감을 자극하는 물상을 만나면 옛 일을 추억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기쁨과 분노, 공포 그리고 슬픔 등의 정서를 느끼며, 급기야 시간의 흐름과 함께 그 감정들을 더욱 풍부하게 키워 간다.

작가들은 이런 부정형한 희미한 기억을 이미지화하여 표현하는데 꾸준히 그 역량을 발휘해 왔다.

기리코(Giorgio De Chirico)³⁾는 그리스 생활에 대한 향수와 기억을 죽은 듯 조용히 정지된 물체의 모습을 통해 표현하였다. [도판 1]

달리(Salvador Dali)⁴⁾의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그려진 일상적 사물에 의외의 환상적 해석을 부여해 유아기적 망상을 표현하고 있다.⁵⁾ [도판 2]

이는 과거의 기억이나 잠재의식이 작품의 이미지화 과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것에서 느껴지는 정서의 표현방법으로 오감을 자극하는 물상이 동반됨을 보여주는 실 예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 성공적 이미지화를 위한 요소들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억의 이미지화를 위한 충분하고 자세한 단서가 있어야 한다.

둘째, 물리적 환경상태와 정서적 상태 등이 그 당시와 유사해야 한다.

3) 조르지오 데 기리코 (Giorgio De Chirico 1888-1978) : 그리스 출생, 국적은 이탈리아.

논리적이고 합리주의적 사고태도와 이성지상주의에 대한 반항자로 이성을 뛰어 넘은 잠재된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함.

4) 살바도르 달리 (Salvador Dali 1904-1989) : 스페인 출생, 에스파냐의 대표적 초현실화가.

그의 작품은 현대의 작품들 속에서 느낄 수 있는 무의식의 압도적 위력 등이 내재되어있다.

5) 로버트 레드퍼드, 김남주 역, 『달리』, 1998, p.146~147.

셋째, 기억해내야 할 정보가 다른 것과 구별이 잘되는 명료한 내용이어야 하며 파지능력이 뛰어나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인간의 기억은 한계성을 가진다. 그렇다고 단순히 정보를 비축하고 정리하는 가벼운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니다. 실상 우리인간의 기억은 무언가를 가슴으로 뜨겁게 느끼게 하는 굉장한 일을 수행한다. 이러한 기억의 본질을 파악하여 이미지화 시키는가 못시키는가의 여부는 자신의 기억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활용하려는 우리의 끊임없는 노력에 달렸다.

2. 類似聯想에 대한 定義

수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통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과정에서 기억연상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기억연상이 여러 가지 무형이미지의 조형적 인출과정에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연상의 여러 종류 중 시각적 측면과 함께 심리학적 측면까지 포함하는 유사연상을 전제로 한 작업임으로 그에 대한 이론적 정의를 내려 보고자 한다.

유사연상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것과 유사한 대상이나 과거의 경험, 추억을 떠올리는 것을 말한다. 즉, 어떤 것을 보거나 듣거나 생각할 때, 색깔, 형태, 기능, 감촉, 이미지 그리고 오감(시각·청각·후각·미각·촉각)에 대해 반응하는 것으로, 그것들과 관련된 말이나 과거의 사건이 머리에 떠오르는 것과, 그로 인한 마음의 작용까지를 일컫는다. 길에 떨어진 아이의 머리핀을 보며 어린 시절의 친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나, 시골 장에서 파는 검은 고무신을 보며 고생하시던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 등을 그 예라 하겠다. 이는 조건반

사에 의한 심상적 유추(類推)이며, 여기서 머리에 떠오른 이미지들은 연속적으로 영화처럼 떠오르는 하나 선명한 이미지가 아닌 단편으로의 불확실한 이미지이고 흐린 기억의 재현일 뿐이다.

이처럼 유사연상은 자극물로서의 유도체와 그것에 의해 환기되는 피유도체가 있고, 이들은 하나의 연속적 기억 사슬구조를 이루며 잠재되었다 기억되었다를 반복하여 그 의미를 더해간다. 여기서 자극물로서의 유도체는 보통 눈과 귀 그 밖의 감각기관을 통해 인지되어지는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물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로 인한 피유도체는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한 상징과 비유의 은유적 이미지로써 물체에게 관념적 의미를 부여한다.

이런 물체의 인지를 통한 연상과정은 대개 개인적 체험과 학습의 반영이기에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그 사람의 숨겨진 정신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게 한다.

3. 개체결합에 대한 造形的 考察

생활의 편리를 위해 시작된 조형 활동은 문명의 발달로 인해 차츰 미적 대상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사용되어질 때는 Useful 개념의 실용기이지만, 동시에 보는 이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제공하는 Joyful 개념의 조형물이라는 양면성을 가짐을 자각한 것이다. 이는 현대도예의 조형화가 필연적 현상임을 의미하며,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조형 활동은 끊임없이 개척해야할 대상이란 것을 알게 한다.

조형표현의 원리는 ‘말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하여 사람의 시선을 끄는가.’가 기본이 된다. 이는 공간과 형태의 관계성을 파악해야 하며, 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독창적이고 다각적 이미지 표현기술을 개발함과 동시에 상상력 육성을 도모해야 한다.

개체결합은 이런 조형적 감각을 체득하기 용이한 작업으로 자유롭게 형태를 다루는 구성과정을 통해 창조능력을 배양시킨다. 또한 복잡한 형태미를 강조하여 보는 이에게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며 사고의 즐거움을 제공한다. 더 붙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좀 더 강렬하고 직접적으로 만들거나, 또는 가시화된 개체의 이면에 그 상징성을 은유적으로 내포시켜 보는 이에게 사색의 시간을 갖게 한다.

이는 전적으로 작가의 조형능력에 의해 작업되어지며, 그 조화로운 구성은 정적 밸런스와 동적 밸런스의 ‘변화’에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밸런스란 시각적, 정신적 안정감을 갖게 하는 필연적인 결속을 뜻한다.⁶⁾

개체들의 전체구성은 시각적 강조를 가능케 하는 계산적이고 체계적인 위치선정을 필요로 한다. 형상의 강조요소는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변화와 통일을 갖게 하고 전달내용의 개성과 특성을 나타내며 강력한 호소력으로 시선을 집중시킨다. 그러나 주장이 강한 요소가 너무 많으면 포인트를 벗어나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워지므로 느낌은 약하지만 무게감을 주는 보다 큰 형태의 요소를 대비시켜 전체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공통함을 갖는 요소와 다양성을 갖는 요소의 지나친 사용은 재미를 잃어버리게 하거나 시각적 혼란을 초래함도 고려하여야 한다. 즉 통일과 다양성 사이에서 세심함과 긴장감의 조화를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⁷⁾

방법적 측면으로는 단위형태들의 접합 시 틈이 생기지 않게 정확한 연결을 해

6) 김미옥 · 백숙자 공저, 『입체 조형의 이해』, 2000, p.54.

7) 김미옥 · 백숙자 공저, 상계서, p.56.

야 하고, 개체의 중량감이나 지탱하는 힘을 고려하여 배치하되 필요에 따라 정점이나 모서리 부분을 접합할 경우에도 이런 구성의 힘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이와 같은 개체결합형태의 작업은 다양한 은유적 상징 표현이 가능하여 작가의 의도를 전달하기에 용이하며 우리의 예상보다 더 큰 감흥을 준다.

참 고 도 판



【도판 1】 Giorgio De Chirico
The Enigma of a Day, 1914
잠재된 무의식 세계를 표현한 작품



【도판 2】 Salvador Dali
The Persistence of Memory, 1931
무의식 세계의 압도적 위력이 내재된 작품



【도판 3】 Masayuki Inoue
K-902, 1990



【도판 4】 제이슨 워커
The Trap,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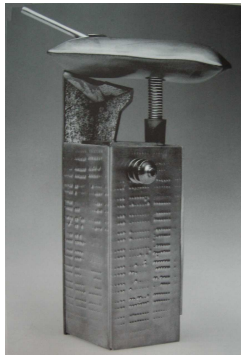
【도판 5】 오쿠다 히로모
音空,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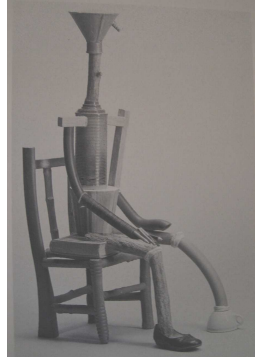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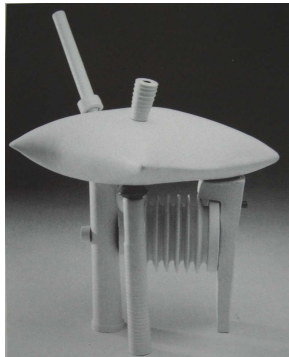
【도판 6】 노이 볼커스
Got a Girl, earthenware



【도판 7】 박 은 정
Teapot,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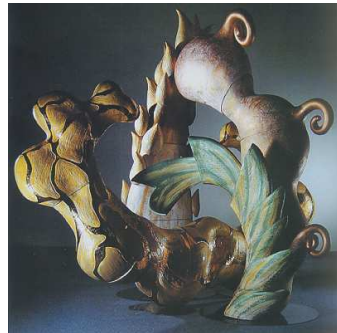
【도판 8·9】 Margaret Realica
Electric Teapot, 1993 T/Pot, 1988



【도판 10】 Richard Shaw
Seated Figure with Grey Head, 1985



【도판 11】 Kimpei Nakamura
Past that is to begin, 1988



【도판 12】 다시마 에즈코
Erinyes, 1992

4. 試作品 製作 및 說明

1) 製作意圖

망각된 기억을 일깨우며 현대인에게 사색의 시간을 제공하는 유사연상에 대해 사고하고, 그 매개체를 사물과 연관시켜 주관적 조형의지로 작품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 세부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미술과 유사연상의 관계를 모색해 보았다.

현대 미술의 대부분이 일방적 메시지 전달이 아닌 유사연상에 의해 해석되어 짐을 인식하고, 이런 연상참여를 유도하여 현대인에게 사색의 시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안위와 평정심을 느끼게 하고자 하였다.

둘째, 기억의 단상인 물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사물은 과거에 존재 하였거나 또는 현재에도 존재하는 것으로 시간이라는 관념을 머금고 있기에, 기억 속에서 상징적 은유 이미지를 끌어낼 수 있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였다.

셋째, 급변하는 세상에 대한 반문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확립해 보고자 하였다.

추억이 깃든 시간에 비추어 현대인의 정신적 상처를 치유하고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좀 더 희망적인 의식 안에서 삶의 풍요로움을 되찾게 하고자 하였다.

넷째, 개체결합을 통한 개성적 조형표현을 시도하였다.

누적과 축적의 원리로 여러 가지 일상용품을 결합시켜 심미적으로 재해석함으

로서, 오감에서 오는 다양한 유희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전체 형태는 즉흥적 느낌이 강하지만 사실상 그 유닛들은 조형미를 최대화 할 위치에 접목되어졌으며, 개체간의 삽입으로 생성된 감춰진 부분을 통해 상상력과 호기심을 유발하여 사고의 즐거움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2) 製作過程

(1) 胎 土

태토로는 틀에서의 고형화가 빠르며 입자가 미세하여 Detail한 표현을 최대화할 수 있는 자기질 점토를 사용하였다. 자기질 점토는 일반적으로 강도와 내열성이 좋고 무엇보다 백색도가 뛰어나 발색이 용이하다는 이점이 있다.

<표 1> 자기질 점토의 조성비

(%)

원 료	SiO ₂	Al ₂ O ₃	Fe ₂ O ₃	MgO	CaO	K ₂ O	Na ₂ O	TiO ₂	Ig.loss	계
성분비	72.69	18.71	0.18	0.05	0.09	2.00	1.12	0.05	5.53	100

(자료 : 고려도토사)

(2) 成 形

가압기법과 이장주입기법으로 얻어진 탈형물을 파괴하고 다시 조화롭게 재결합하는 개체결합성형을 하였다. 이는 복잡하고 현란한 형태미를 강조한 작업으로 초기에는 계획적이고 분석적인 진행보다는 즉흥적인 느낌의 무의미한 개체 접촉 이였으나 그 과정에서 보다 간결하고 함축적인 표현을 모색하게 되었고 결국 단순한 형태의 유닛과 자극적 소재의 조화로운 접합에 입각하게 되었다.

작품의 본질을 보다 자세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장주입기법과 가압기법으로 성형하였고, 한 석고틀에서 여러 번의 탈형을 가능케 하기위해 태토의 농도는 일반보다 수분을 적게 하여 규산소다의 양을 증가시켜가며 농도를 맞추었다. 태

토 65~70g에 물 30~35g과 해교제 0.3~0.7g을 첨가한 후 충분히 교반하였다.

각각의 형태들은 비록 같은 틀에서의 탈형물일지라도 전체형태에서 차지하는 위치선정에 따라 그 두께를 달리하였다. 탈형물의 위치가 윗부분일 경우 소성 시 처지거나 무너짐을 고려하여 약 5~8분 후 석고틀 내부에 0.5~0.7cm의 슬립이 형성되면, 탈형물의 위치가 아랫부분일 경우 전체형태의 힘의 축이 되므로 약10~15분 후 석고틀 내부에 1.5~2cm의 슬립이 형성되면 남은 이장을 배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작업초반에 탈형된 태토와 작업후반에 탈형된 태토의 수분함유율이 차이를 보여 접합 부분이 갈라지는 문제발생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주입성형으로 생겨난 형틀의 이음새 및 주입구의 형태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지하여 자연스런 장식의 효과를 주었고, 완성된 작품은 급격한 공기의 온도변화 같은 외부자극으로 인한 뒤틀림이나 접합부분의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덮개를 씌워 그늘에서 서서히 자연 건조하였다. 또한 소성 시 작품내의 원활한 공기 소통을 위해 공기구멍을 충분히 뚫어주었다.

(3) 釉 藥

색채로는 칸딘스키의 ‘흰색은 가능성으로 차 있는 침묵이다.’⁸⁾ 라는 말을 인용하여 대부분의 작품에서 기억의 문을 열어주는 기본색으로 흰색을 사용하였다. 흰색은 단순하고 명료하여 형태의 미를 더욱 부각시켜 주었다.

반면 작품의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그 소재가 가지는 원래의 색으로 표현함으로써 더욱 강렬한 느낌을 주었고, 따뜻하고 화사한 느낌의 파스텔톤 색화장

8) Wassily Kandinsky, 권영필 역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1971, p.94.

토로 의미에 부합하는 그림을 그려 장식 하였으며, 고화도 유약(던컨사)을 수채화 느낌으로 흐르게 하거나 또는 염화코발트(CoCl_3)를 물에 2:100의 비율로 용해시켜 시유함으로 기본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의 변화도 시도해보았다.

전체시유는 접합된 소재들 간의 공기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덤병시유 시 파손의 위험이 사료되어 복잡한 형태에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분무법으로 균일하게 시유하거나, 또는 시유하지 않고 소성하여 태토본연의 발색을 이끌어내고 면과 면이 만나는 모서리 부분과 형틀의 이음새 부분의 뭉개짐을 피하였다

<표 2> 유약 조합비

(%)

유약		투명유	흑유	매트백유	골드망간	적철유	
성분	원료명	화학성분					
	인도장석	$\text{K}_2\text{O} \cdot \text{Al}_2\text{O}_3 \cdot 6\text{SiO}_2$		40	40	5	43.5
	부여장석	$\text{Na}_2\text{O} \cdot \text{Al}_2\text{O}_3 \cdot 6\text{SiO}_2$	49.4				
	금산석회석	CaCO_3	20	19	16		6.3
	부여규석	SiO_2	9.4	6			18.9
	인도네시아카올린	$\text{Al}_2\text{O}_3 \cdot 2\text{SiO}_2 \cdot 2\text{H}_2\text{O}$	8.5	20	3	4	5.8
	탄산바륨	BaCO_3	8.7		28		
	아연화	ZnO	4				
	산화티탄	TiO_2			13		
	결성활석	$3\text{MgO} \cdot 4\text{SiO}_2 \cdot \text{H}_2\text{O}$					5.4
	골회	$\text{Ca}_3(\text{PO}_4)_2$					9.4
	산화제2철	Fe_2O_3		9			11.8
	산화크롬	Cr_2O_3		3			
	산화망간	MnO_2		3		35	
	산화동	CuO				5	
	산화코발트	Co_2O_3				3	
	옹기토					48	
계			100.0				

<표 3> 초벌용 화장토 조합비

(%)

인도장석($K_2O \cdot Al_2O_3 \cdot 6SiO_2$)	10
일본알루미나(Al_2O_3)	5
일본와목점토($Al_2O_3 \cdot 2SiO_2 \cdot 2H_2O$)	25
인도네시아카올린($Al_2O_3 \cdot 2SiO_2 \cdot 2H_2O$)	30
부여규석(SiO_2)	25
규산지르콘($ZrO_2 \cdot SiO_2$)	5
계	100

<표 4> 초벌용 화장토와 고화도 안료 혼합비

(%)

색 상 원 료	Lilac (H-555)	Chocolate (H-1470)	Grey (H-730)	Ti-Yellow (H-265)	Red (영국산)
초벌용화장토	100	100	100	100	100
안 료	4	3	3	5	5

<표 5> 초벌용 화장토와 고화도 안료 혼합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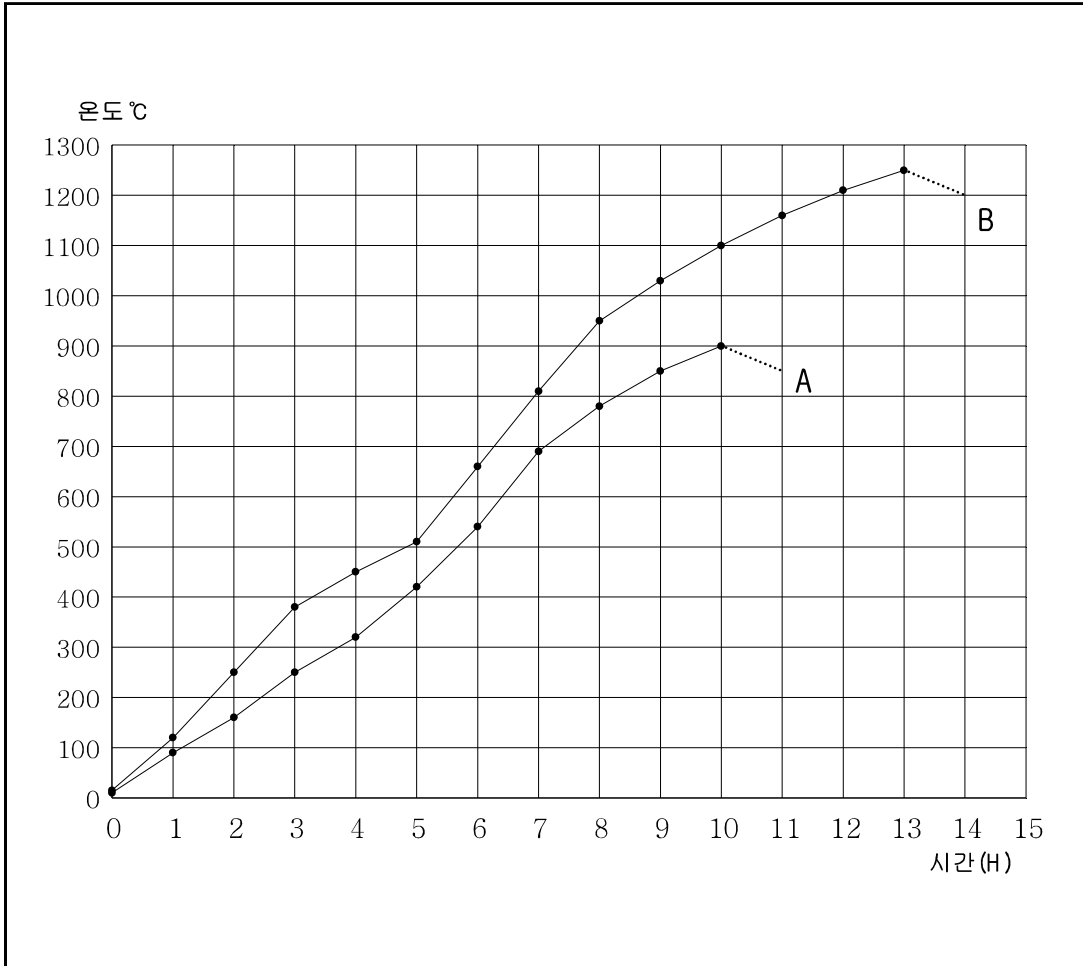
색 상 원 료	Co-Blue (H-520)		Green (H-606)		Brown (H-460)		Orange (H-430)		Black (H-855)	
초벌용화장토	100		100		100		100		100	
안 료	3	15	3	15	4	20	4	20	12	65

(4) 燒 成

소성 가마는 0.3루베 전기가마로 산화염하였다.

1차 소성에서는 태토의 두께와 건조 상태로 인한 파손을 고려하여 500℃까지 중간 중간 온도를 유지해가며 6시간~7시간에 걸쳐 소성하였고, 1차 소성 후 기물의 강도를 최대화 하기위해 총 10시간~11시간 정도를 소요하여 900℃까지 온도를 높여주었다. 2차 소성에서는 소지에 부착된 유약과 화장토가 충분히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을 고려하여 1250℃까지 약 13시간 전후에 걸쳐 소성하였으며, 소성이 끝난 후 급랭으로 인한 유약의 균열과 작품의 파손이 우려되어 외부의 공기를 차단한 채 가마 안에서 15시간동안 서서히 냉각시킨 후 요출하였다.

<표 5> 소성 온도표



A : 1차 소성 B : 2차 소성 (산화)

3) 試作品 説明

【시작품 1】 Magic Castle



투명유, 고화도 유약(던컨사) · 1250℃ 산화소성 · 37×35×54(H)cm

【시작품 2】 Haven of Peace



색화장토, 고화도 유약(던킨사) · 1250℃ 산화소성 · 34×22×58(H)cm

【시작품 1】 Magic Castle

어릴 적 엄마의 손을 잡고 기대에 부풀어 들어섰던 놀이동산은 항상 상상해 오던 동화 속 모습 그대로였다. 자신만의 세상인 마법의 성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있는 공룡모형물은 그 무엇보다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며 동심의 세계로 하염없이 빠져들게 하였다.

모든 세상이 내 것 같았던 그 동산을 회상하며, 피로한 삶은 잠시 뒤로한 채 자신이 주인공이었던 그 시절의 즐거움에 젖게 되길 바란다.

손자국을 가미한 원통을 전체뼈대로 그 안에 소재들을 접목시켰고, 투명유로 분무시유한 후 고화도 유약(던컨사 EZ010, EZ023, EZ034, EZ050)을 그 위에 붓으로 덧칠하여 소성 후 흐르는 듯한 수채화 느낌을 유도하였다.

【시작품 2】 Haven of Peace

도심에서 찾은 순수한 자연의 모습인 새의 둥지는 다시 찾아올 주인을 기다리며 꽃을 피우고 있다. 이는 힘들고 지칠 때 기댈 수 있고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따뜻하고 정겨운 내 고향집을 연상케 한다. 철없던 유년시절을 보낸 고향집의 회상이 현대인의 마음에 아늑한 쉼터의 공간으로 자리 잡아 잠시나마 안위를 가져다주길 기대한다.

단순한 형태의 Unit들은 사람들의 목적에 의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정형화된 도시이미지이며, 그 면에 그래픽화 된 도시경관을 색화장토로 그려주었고, 포인트 부분은 고화도 유약(던컨사 EZ010, EZ024, EZ033, EZ037, EZ058)을 사용하여 소재의 원색을 그대로 표현함으로 더욱 강렬한 느낌을 주었다.

【시작품 3】 박제된 기억들 I



시유하지 않음 · 1250℃ 산화소성 · 28×23×47(H)cm

【시작품 4】 박제된 기억들 II



투명유 · 1250℃ 산화소성 · 39×32×47(H)cm

【시작품 5】 박제된 기억들 Ⅲ



투명유 · 1250℃ 산화소성 · 52×37×54(H)cm

【시작품 3, 4, 5】 박제된 기억들 I,II,III

본 작품은 무의미하게 창고에 뒤죽박죽 쌓여있는 물건들을 연상한 것으로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두서없이 잠재된 기억들의 표현이며, 선명한 이미지가 아닌 흐린 기억의 단상이라 할 수 있다. 그 곳의 물건들은 때 묻고 낡은 것들뿐이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며 지나간 과거속의 진실 된 삶과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동경하고 그리워하게 만든다. 이는 지나간 시간이 단지 환상임을 너무도 잘 알지만 잊히지 않는 아득한 기억을 간직하고 싶은 인간의 욕구일 것이다.

어떠한 성공과 결과를 향해 달려만 가던 것을 잠시 멈추고 모르는 사이 놓쳐버린 과거의 추억, 사람, 일 등을 되돌아보는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으면 하고, 결국 현재에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한 치 마음먹기에 달렸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전체시유는 복잡한 형태미를 강조하기 위해 단순하고 명료한 느낌의 투명유로 분무시유 하거나, 태도본연의 깨끗한 발색을 최대화하고 모서리 부분의 예리한 느낌을 살리기 위해 시유하지 않고도 표현해 보았다.

【시작품 6】 존재확인...?



무광택 백유, 염화코발트 결정유 · 1250℃ 산화소성 · 20×60×72(H)cm

【시작품 7】 마지막 해돋이



색화장토 · 1250℃ 산화소성 · 43×30×54(H)cm

【시작품 6】 존재확인...?

기계문명의 발달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책임과 의무를 강요하며 행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인간은 그 짜여진 틀에 맞추어 살기위해 점점 움츠러들고 있다.

포장박스에 담겨져 있는 장난감 인형은 마치 사회라는 틀에 갇힌 움츠린 현대인을 연상케 하였다. 본 작품은 이런 현대인의 모습을 장난감 인형에 비유하여 육면체 틀에 가두고 우리를 제약하는 사회 규범들을 문자로 표현한 작품이다.

염화코발트결정(CoCl_2)을 물에 2:100 비율로 용해시켜 분무시유 하였고, 질감이 있는 표면에 무광백유를 이중시유한 후 닦아내 주었다.

【시작품 7】 마지막 해돋이

드넓고 푸르던 자연은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건물과 공장으로 인해 설 곳을 잃어버리고 있다.

본 작품은 우리나라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며 도심 속에 설치되었던 공장풍경을 회상한 것으로, 기계문명의 발달로 인해 점점 더럽혀지고 탁해지는 하늘이라는 공간에 대한 무감각을 일깨우고 그 연약함과 소중함을 강조하려 한 작품이다.

전체 형태는 단순한 Unit들을 조합시켜 전형적인 건축물과 공장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그 위에 채도가 낮은 색화장도를 이용하여 잿빛 하늘의 이미지를 패턴화하여 그려주었다.

【시작품 8】 소녀 일탈을 꿈꾸다



투명유, 고화도 유약(던컨사) · 1250℃ 산화소성 · 56×38×73(H)cm

【시작품 9】 In My Memory I



흑유, 망간 골드유, 적철유, 고화도 유약(던컨사) · 1250℃ 산화소성 · 27×15×22(H)cm

【시작품 10】 In My Memory II



흑유, 망간 골드유, 고화도 유약(던컨사) · 1250℃ 산화소성 · 30×22×27(H)cm

【시작품 8】 소녀 일탈을 꿈꾸다.

구두는 어린 시절 해보고 싶었던 꿈들을 생각나게 한다.

어머니가 벗어놓은 틈을 타 슬쩍 신어본 신발은 한발짝 두발짝 옮길 때마다 아슬아슬한 황홀경을 느끼게 했다. 구두를 신을 나이가 되어야 갈 수 있었던 비밀스런 곳에 대한 궁금증은 구두에 대한 동경으로 이어졌고, 그 후로 오랫동안 선망의 대상이 되어왔다. 어른이 된 지금도 구두는 나를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멋진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감미로운 꿈과 환상에 젖게 한다.

이루지 못했던 꿈들과 환상세계에 대한 동경의 마음을 구두에 담아 어디론가 날아가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해주었고, 복잡한 형태를 감안하여 단순하고 명료한 느낌의 투명유로 분무시유 하였다.

【시작품 9, 10】 In My Memory I, II

겹쳐진 돌의 모습이 심장의 형태를 연상케 한다는 것을 착안하고, 그 형체도 실체도 없는 기억의 저장고인 마음을 그 속에 담아보려 하였다. 돌 틈으로 자란 나뭇가지는 심장과 연결되어 어떤 자극으로 인해 되살아난 기억을 공급하는 혈관의 은유적 표현이다.

흑유 : 망간 골드유 : 적철유를 1:2:3의 비율로 혼합하여 붓으로 칠해 주었고, 작품의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 고화도 유약(던컨사 EZ023, EZ024, EZ026, EZ058)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Ⅲ. 結 論

과거의 기억은 최근의 기억보다 희미할 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사라진다고는 볼 수는 없다. 다만 인간의 기억능력 한계로 인해 잠재되어지는 것으로 보통의 경우 어떤 매개체를 통한 유사연상과정으로 재인식 되어진다.

본 연구는 유사연상 매개체인 물상을 은유적으로 작품에 표현하여 기억의 망각을 일깨움과 동시에 그 때의 감정까지 되살리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과정을 통해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상과 인식의 전환이 일상의 모든 것들을 소재로 만들어 줌을 알 수 있었고, 사물의 조형성과 다양성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느꼈다.

둘째, 유사연상의 소재인 각 Unit들은 과거로의 시간을 머금고 있는 것들이기에 연상의 단서로써 은유적 형상화가 가능하였고, 우리 현실에 맞는 미감으로 재구성되어졌을 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의식의 통로역할을 하며 보다 깊이 있는 관념적 해석을 이끌어내었다.

셋째, 형태의 구조적 결합에 있어서 개체간의 힘의 분배 문제로 인한 제약으로 체계적 조형의 접근이 필요함을 깨달았고, 그로 인해 생성된 개체간의 감추어짐이 호기심과 상상력을 불러일으킴을 경험하였다.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가교역할의 소재들을 지속적으로 탐구, 고찰해야함을 자각하였고, 이런 끊임없는 노력이 앞으로의 작업과정에서 더욱 심화된 새로운 조형언어를 구축할 밑거름이 되어줄 것이라 믿는다.

參 考 文 獻

- 김미옥 · 백숙자 공저, 『입체 조형의 이해』, 도서출판 그루, 2000
- 김병익, 『도자공예』, 태학사, 1998
- 박영순, 『한국어 의미론-개정 증보판』,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 유로 현대미술 연구회, 『현대미술 속으로』, 도서출판 예경, 2002
- 최 민, 『기억과 망각』, 문화과학, 2000
- Henri Bergson, 『물질과 기억』, 서울 교보문고, 1991
- 제임스 하긴스, 박수규 역,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결정적 아이디어 101』, 비즈니스 북스, 2003
- 로버트 래드퍼드, 김남주 역, 『달리』, 한길아트, 1998
- 루돌프 아른하임, 김정오 역, 『시각적 사고』, 이화여자 대학교 출판부, 1982
- S. Alexandrian, 이대일 역, 『초현실주의 미술』, 열화당, 1984
- Wassily Kandinsky, 권영필 역,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열화당, 1971
- 김도진, 「잠재의식을 통한 상징적 도자 조형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안정희, 「연상기억이론을 통한 형태추출방법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양은주, 「개체 조합에 의한 도자 표현 연구」,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ABSTRACT

Research on Ceramic Forming through Association by Similarity

Kim, Hye Young

Dept. of Crafts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For all of us, the ability to remember things we did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human beings, which can not ever be overlooked or ignored. Our ability to remember is the basis for the immense mental activities that we do in our everyday life. Unfortunately, our ability to memorize has a limitation, so our memories about the past events will eventually disappear as the time elapses.

Usually, forgotten memories do not disappear completely. Rather, they become a latent memory that may be retrieved by a process of reminiscence. For example, a person, observing a word or an object, might relate them to a set of memories and experiences that he or she previously had. Furthermore, the person might even experience some emotional changes during the observation. These emotional changes help the person to feel those forgotten emotions that he or she had previously and sometimes even help the person to produce new

emotions about the word or the object. As a result, the person's memory about the word or the object will be enriched by the new emotions.

By awakening their previous memories by association through similarity, the experiment conducted in this paper will provide a way to relieve mental traumas that the many modern people are suffering these days. At the same time, this paper will try to help those people to reestablish their self identity. Finally, this paper will reflect their current life to their happy memories, giving their mind the comfort and the security.

The experimental objects used in this paper have a shape of natural objects such as a branch of tree and a stone as well as obsolete objects such as rubber shoes and a old case for agricultural. These objects are chosen because they may conduct as a medium that can recall people's previous memories. At the first glance, each experimental object alone seems irrelevant to the purpose of the experiment that this paper will describe. However, with a metaphorical description by symbolization and comparison, those objects, as a group, can be re-defined as a medium to recall people's previous memories. The experimental objects will be made by forming each individual object and put them together. The joints between each objects will stimulate the observer's curiosity and interest, encouraging them to think freely and to have fun. The experimental objects will be formed by clay and painted by a white glaze. The white color was chosen to highlight the shape of the experimental objects. After forming is completed, the clay will be baked in an electrical kiln twice.

I sincerely hope that the experiment described in this paper will help many people to mitigate their suffering from trauma. In addition, I also hope them to build a ability to pay attention to those objects they see in their ordinary life.